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부패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사사기 1:1-2:5]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사사기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숨김없이 낱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간, 살인, 대량학살, 성적문란, 유아 희생제물, 거짓, 우상숭배 그리고 강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도덕적 위기입니다. 마치 꽃병에 꽂은 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이미 뿌리에서 잘려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사악함과 타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를 자신들의 틀에 집어넣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모든 것 드러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우리 마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거짓 종교들을 부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서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대답을 돌 판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사사기 1:1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아직 이기고 있으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섹에서 적국 왕을 살려두었고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은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충성심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선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명령: 여호와의 사자: "너는 이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불순종했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같이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맞서고 계십니까? 삶과 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길 원하는 사람들과 맞서고 계십니까? 주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로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으실 것이며 민족들은 너희에게 울무가 되고 유혹이 될 것이다!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으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항상 신실하십니다. '1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사사기 2:1). 길갈,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곳. 길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곳. 길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돌무더기로 표시한 곳. 길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간 곳.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백성들을 고통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 부릅니다. 사사기는 단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사실 죄 가운데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더욱 더 잘 드러냅니다. **부패함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긴 액자는 사랑이 영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조차도 이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분은 두 팔 벌려 그 분께 나오려는

누구든지 환영하십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그리고 그의 구원을 보내셨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모두에게 충만히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 가장 훌륭한 구원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긍휼로 인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의 경고에 귀 기울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 분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구합니다.